

2016년 3월 13일

# 학원선교교육주일 장학주일을 지킵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학원선교회 · 교목회

# CONTENTS

|                                                         |    |
|---------------------------------------------------------|----|
| <b>감독회장 목회서신</b><br>전용재 감독회장                            | 03 |
| <b>설 교</b><br>최재화 감독 (교육국 위원장)                          | 04 |
| <b>학원선교회 회장 메시지</b><br>김종훈 목사 (학원선교회 회장)                | 08 |
| <b>총무 인사말</b><br>김낙환 목사 (교육국 총무)                        | 10 |
| <hr/>                                                   |    |
| <b>자 료</b><br>학원선교교육주일·장학주일 예배문<br>교 육 국                | 11 |
| 교목활동 1_ 배화여자대학교<br>전병식 목사                               | 13 |
| 교목활동 2_ 덕신고등학교<br>김세환 목사                                | 18 |
| 계통학교와 자매교회와의 동역활동<br>서울관광고등학교와 중앙교회 _ 조원철 목사            | 21 |
| 우리교회의 학원선교와 교육 1<br>대신교회의 장학사업을 통한 다음세대 세우기 _ 홍원영 목사    | 24 |
| 우리교회의 학원선교와 교육 2<br>예수마음교회의 학교 앞 전도 이야기 _ 김성기 목사        | 27 |
| 감리교계통학교 설립자의 학원선교와 교육<br>계훈학원 팔봉중학교 _ 박정수 목사            | 30 |
| 사)생명을 나누는 사람들<br>학생들에게 생명존중과 생명 사랑 _ 사무총장 조정진 목사        | 34 |
| 계통학교 중등교목회의 학원선교교육<br>교회학교 부흥은 학원(학교)선교가 해답입니다 _ 서정식 목사 | 39 |
| <hr/>                                                   |    |
| 감리교계통학교 현황 (법인 이사장 학교 교장 교목)                            | 42 |
| 관련기관 임원 현황                                              | 45 |
| 기독교학교 교육현장                                              | 46 |



## 2016년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 목 · 회 · 서 · 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학원선교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오는 3월 13일은 학원선교교육주일 및 장학주일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선교초기부터 교육사업을 통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러는 의술을 배우려고 스크랜틴에게 찾아온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시작하면서 1886년 6월 서울에 "배재학당"을 정식으로 시작하였고, 스크랜틴 대부인은 1885년 10월 정동에 선교 부지를 마련하고 여 학당과 사택을 마련하여 "한국의 부녀자들이 보다 좋은 한인이 되며, 한국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훌륭한 한국"이 되게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하였고 왕비께서 "이화학당"이란 이름을 지어 보내주었으며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배화학당 및 평양 광성학교, 정의여학교, 영명학교, 인천 송도학원 등을 건립하여 교육 사업에 진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학교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예배와 기독교교육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학교 설립이념과 교육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기독교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교차하고 정보화시대의 특성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끼치며 세속주의 물결에 신앙적인 질문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육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입니다. 학원선교교육은 단지 한 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의 인격과 교양, 신앙을 갖도록 하는 전인적 인간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신앙과 인격과 교육으로 세워 갈 때 건강한 교회와 나라가 세워 지는 것입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 및 장학주일을 맞아 모든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학원선교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목과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형통하고 부흥하는 세대가 되라!

예레미야 10:20-21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교회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교회 안에서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목회자로서 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만나게 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 바로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과 부흥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과 형통은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 첫째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양떼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흠어짐의 원인이 있는데, 목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질 때, 양떼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가 있는 가정,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가 있는 학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부흥하고 형통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중국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스물다섯 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의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은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시절, 척박한 땅에서 선교사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을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즐겁고 행복한 사역의 비결은 내가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만남으로 시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므로 걸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와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부모와 교사가 하나님을 찾

을 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저들의 학업의 현장에  
형통과 부흥의 회복이 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사  
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힘을 찾는 사람은 “광야 건조한 곳, 건진 땅, 사람  
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렘17:6)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회자,  
하나님을 찾는 부모, 하나님을 찾는 교사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  
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  
치지 아니함” 같은 형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합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학원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바나바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  
여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교회적인 상황과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가로  
막아도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가 영적 도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만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  
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  
실 것입니다. 흠어진 자녀들이 돌아오고 치유되고 부흥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압복강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복 받기를 구했  
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승리의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의 교  
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학교가 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 **둘째는 영적으로 끊어진 모든 것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와 학원의 회복은 영적으로 끊어진 것을 온전케 하는 삶이 될  
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10장 20절에 보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  
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  
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떠나가고 신앙공동체에게 찾아온 위기는 영  
적으로 끊어진 생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의 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장막은 무너지집니다. 예배가 무너지집니다. 하나님의 성  
전이 무너지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끊어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위기, 교육현장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각 사람 안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토록 뜨겁게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와 은사로 무장된 한국 교회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줄들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줄은 붙잡을 줄 알면서 영적인 줄, 신앙의 줄은 놓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신앙으로 연결된 관계가 끊어진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었을 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끊어진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일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렘2:13)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잘못된 죄악의 고리와 세상적인 관계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줄로 다시금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형통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영적인 끈을 동여맬 때 임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학원 문화가 새로워지고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 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무너진 희망들이 다시 온전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시는 복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교회마다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머무는 학원의 현장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종훈 목사  
학원선교회 회장

#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리교회 성도들과 감리교계통학교의 교목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매년 3월 둘째 주일은 전국 감리교회가 감리교계통학교와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학원선교교육은 맥클레이 선교사가 1884년 7월 3일 교육과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고종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8월 3일 정동에서 고영필, 이겸나 두 학생을 데리고 교육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태복음 20장 :26-27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배재학당을 세우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효시로 하여 스크랜튼이 1886년 5월 31일에 이화학당을, 남감리회 캠벨 여사는 1898년 10월 2일에 배화학당을 세웠었습니다. 또 배재학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선교사들은 1887년 10월 8일에 지금의 정동제일교회의 전신인 벤엘교회를 세웠고, 배화학당에서 시작된 예배는 중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학원선교교육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영화(1892), 광성(1894), 정진(1896), 정의(1899), 루시(1903), 호수돈(1904), 송도(1904), 미리홈(1906), 숭덕(1906) 등의 학교가 설립되고 기독교 정신 속에서 육영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학원교육은 선교활동의 발판이 되어 우리나라의 현대식 신교육의 기초를 이루었고, 아울러 민족과 나라를 위한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어 훗날 민족계몽과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으며 복음 전파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원선교교육과 학원현장은 심각한 위기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안티 기독교의 SNS 등을 통한 활동과 내부적으로는 기복적 신앙과 개교회주의, 성장위주로 인한 맘몬 우상숭배, 교회와 사회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의 상실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음전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학원선교교육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현장이 어둡고 사회에서의



아펜젤러 선교사는 마태복음 20장 :26-27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배재학당을 세우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전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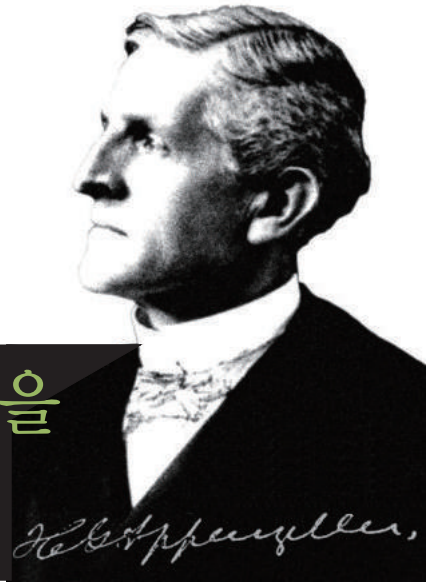
학원현장이 어둡고 사회에서의 복음전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을 맞이하여 감리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선교교육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으로 훈련된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은 감리교회와 감리교계 통 학교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배려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가는 사명을 학원선교교육을 통해 감당해야 합니다.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을 지키는 감리교회와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우리의 자녀와 청소년을 위한 영혼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학원선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교육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한 마음으로 학원선교교육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을 성수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에 산재한 감리교회와 감리교 계통학교 위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둘째 주일은 (3월 13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학원선교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아펜젤러(H.G. Appenzeller)선교사가 오시던 바로 그 해인 1885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을 설립하여 학원선교를 시작하셨고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동량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년후인 1886년,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학당을 세우시고 여성교육 불모지인 조선에 서양의 근대식 여성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의료, 사회문화의 각 분야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활약은 조선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비롯하여 한글학자 주시경, 감리교 감독 김종우, 의학자 오궁선, YMCA 활동에 헌신한 신흥우 박사 등 건국 초기의 지도자들은 이처럼 모두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아펜젤러의 교육 이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하여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아펜젤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신, 기독교 정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의 이런 교육철학은 곧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독립운동과 건국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원선교는 우리들에게 선교의 황금어장 같은 곳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을 실현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에 이처럼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만 하고 또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원선교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목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회는 학원선교에 교목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주변에 감리교 계통학교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목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물질로 지원하여 주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학원선교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근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 예배문

|         |                          |       |
|---------|--------------------------|-------|
| 예배로의 부름 | .....                    | 다 함 께 |
| 시 편 목 상 | .....                    | 사 회 자 |
| 경 배 찬 송 | ..... 10장 .....          | 다 함 께 |
| 교 독 문   | ..... 83번(빌립보서 4장) ..... | 다 함 께 |
| 신 앙 고 백 | ..... 사도신경 .....         | 다 함 께 |
| 공 동 기 도 | .....                    | 다 함 께 |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비행과 탈선을 일삼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일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온 교우가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어 젊은이들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       |
|---------|-----------------------------------------------------|-------|
| 송 영     | ..... 3장 .....                                      | 다 함 께 |
| 대 표 기 도 | .....                                               | 학생중에서 |
| 하나님의 말씀 | ..... 예레미야 10:20-21 .....                           | 학생중에서 |
| 특 별 찬 양 | ..... 성가대 또는 인근 학교의 찬양단의 찬양 .....                   | 성 가 대 |
| 말씀의 증언  | ..... 형통하고 부흥하는 세대가 되라!<br>(담임목사 또는 인근 학교 교목) ..... | 설 교 자 |
| 목 회 기 도 | .....                                               | 설 교 자 |
| 찬 송     | ..... 574장 .....                                    | 다 함 께 |
| 봉 헌 기 도 | .....                                               | 교사중에서 |
| 성도의 교제  | ..... 초청된 인근학교 교장, 교목, 교사, 학생 소개 .....              |       |
| 장학금 수여  | .....                                               | 담임목사  |
| 사랑의 찬양  | ..... 좋으신 하나님 또는 사랑의 띠 .....                        | 다 함 께 |
| 축 도     | .....                                               | 담임목사  |

## 부모와 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좌·담·회

예배 후 청소년을 자녀로 둔 교우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생각과 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좌담회를 갖는다.

- **발제** : 부모대표, 교사대표, 청소년대표
- **주제** : 청소년, 교회교육, 학교교육, 주일성수 등

발제자들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오늘의 청소년들이 보이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며 진행자를 청소년부 교사 중에서 선임하여 의견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을 위한 준비

1. 한 주일 전에 학원선교교육주일·장학주일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회 주변 초·중·고의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청소년을 초청하되, 특히 기독학생 동아리나 교목이 있는 경우 초청하여 예배순서의 일부를 담당케 한다.
2. 학교 입학식과 개학식 후 처음 모이는 주일이므로 입학 축하예배 또는 졸업 축하예배를 겸하여 신입생과 졸업생을 위한 간단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다.
3. 교회에 장학예산이 있으면 이날 예배 중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날 헌금을 장학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도록 한다.
4. 학원 선교에 보다 적극적인 교회라면 지역의 교사와 학생들은 토요일에 초청하여 간담회나 자매결연 등을 가질 수도 있다.

전병식 목사

배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

# 배화여자대학교 교목실의 신앙과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



2015년 배화여대 교목실에서는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인성함양, 그리고 정서적 돌봄을 위해 ‘예수마을 촌장제’와 ‘감사노트’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교목실에서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해왔다. 특히 목요 정기 학생 채플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인성 교육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년부터는 ‘설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목들이 그 커리큘럼에 맞춰 설교를 했다는 점이다. 물론 매해, 매학기 학생 채플의 운영과 진행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설교 커리큘럼을 작성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봄 학기, 1학기의 설교는 신입생을 고려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기본과 복음의 기초와 같은 ‘전도’를 염두에 둔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하였고, 2학기에는 신앙실천으로 인도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인성을 함양하는 설교로 구성하였다.

설교 커리큘럼은 학생들의 연령대에 맞춘 심리학적 요소와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젊은이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고도 중심적인 내용을 알릴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학교의 학사 운영에 맞추면서 또한 기독교의 신앙적 절기인 교회력을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인성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따로 인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설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격과 품성의 성장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게 하였으며, 한편 채플 운영에 ‘금연 교육’이라든가 ‘장기 기증 서약’ ‘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신앙과 인성에 관한 지도를 했다.

2014년 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50개 주에 있는 명문대학 졸업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주제는 ‘명문대학을 나오면 성공하는 것인가? 행복해지는 것인가?’였다. 결과는 성공이나

행복은 학위와는 별개라고 나왔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신이 공부한 ‘대학에서 어떠한 정서적 지원이 있었는지, 대학에서 깊이 있는 배움의 기회가 있었는지’가 인생의 행복도와 직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좋은 스승을 만나 흔들린 마음을 다잡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그런 기회를 못 가진 사람보다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많



## 행복한 배화인

26th, November, 2015

### 가장 연약한 이에게 가장 큰 사랑을



사람들은 근사하고 멋지고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심이 가고 마음도 갑니다  
심지어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아픔을 삭이는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관심받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보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가장 연약한 이에게 가장 큰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 행복한 일일통민연과 장재하 김가은 양시영 박현솔 이인지 강서현 학생입니다

Invitation to be yourself

## 사랑으로 걸어가기

고원도전서 13집

새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을 품는다는 건 낱개를 껴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내려 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멘탈을 대어주기 위해 자신의 털을 뽀고 상처로 쓰러진 몸으로 알을 품습니다. 하지만 동지를 떠나보내야 할 때는 아프지만 애써 외면을 합니다. 죽을힘을 다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주지말아야 할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타들어가더라도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서남대학교에 강의하시는 김성호 교수가 쓴 [큰오색따따구리의 육아일기]를 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아빠새의 자극한 사랑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주고받는 삶인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사이도 둘 사이에는 얇은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전위적인 화가 마르셀 뒤샹은 그것을 '앵프르망스' infirmum이라고 불렀는데 인간간의 관계는 아무리 친밀해도 어쩔수 없이 이런 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극한 부모자식간의 사랑도 이 틈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틈을 초월하고 그 틈을 없애는 완전하고도 광대한 사랑이며 친절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속에서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사랑받는 존재로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인내(사랑은 오래 참습니다)와 배려(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의 노력속에 있습니다. 사랑은 외지이며 신앙이며 실천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될때 그 사랑은 비로소 온전하고도 완전한 의미의 사랑으로 합동하고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겨울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방대한 깊이를 경험하는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가운데 있어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여정을 사랑없이 여행하지 마십시오.



배움과 일이 하나가 되는  
실용학문 중심 최고 대학

110-7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길 34  
Tel. 399-0700 Fax 737-8431 교육실 399-0739

제 15 권 제 19 호

# Baewha Worship

배화여자대학교 학생예배

2015.11.26

종강예배  
총학생회 활동보고



묵연은  
배화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배화, 글로벌 실무형 인재로 세계를 품다!



은 대학도 ‘학생들에게 어떠한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런 환경을 배경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학생지원처 뿐만 아니라 교목실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의 형성되어 2015년에 학생들의 인성 및 정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다.

교목실에서 이전에 계속해 오던 ‘믿음으로 이끌기’와 ‘사람으로 되어가기’ 라는 신앙과 인성교육에 더욱 활력을 주고자 도입한 것이 우선 ‘예수마을 촌장제’이었다. 촌장이란 전통적으로 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배화 신앙 마을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어나가는 안내자이자 촉진자로서 세 명의 목사가 각각 한 마을 씩을 맡아 인도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나 단지 신앙적인 안내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에 같이하는 ‘삶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역의 방향을 정했다. 세 명의 목사가 4개 또는 5개 학과를 맡아서 담당하도록 나누었는데, 일종의 교회의 지역이나 교구 목사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촌장 목사들은 학생들의 인성과 신앙에 대한 바른 지도와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 특히 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하기 위해 여러 교회와 단체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종로 지방과 서울연회, 자매 교회인 종교교회와 자교교회, 그리고 후원교회인 광림교회와 그 외 몇몇 교회와 개인과 단체를 통한 장학금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교목실이 장학금을 유치하고 후원하는 데 한 몫을 감당했다. 물론 때로는 목사들 자신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가 가장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학생 세례 신청자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약 200내지 300명, 많은 해

에는 500여명 까지 학생 세례를 베풀었는데, 3년 전부터 그 숫자가 100명 단위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252명으로 다시 200명 대 이상으로 세례신청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마을 촌장제가 거둔 성과는 교목실과 학생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앙 활동 뿐 아니라 여러 봉사 활동에 교목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노숙자 식사 지원 및 방한용품 제공’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제작 및 배달’ ‘양로원 어르신 위문’ ‘다문화 가정 김장 봉사’ 등에 교목실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여 큰 보람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

물론 우리 대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각자 담당 지도교수들이 있고 교수들 또한 학업이나 장학과 진로 그리고 인성 지도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목사들이 지원하고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교수들의 지도와 목사들의 인도가 서로 연결하고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겼고, 또한 그렇게 ‘예수마을 촌장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 학생을 위한 신앙상담과 정서적 돌봄, 봉사 활동 인도와 생활 지원 등에 있어서 새로운 활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어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인성 교육이 대중적인 강연과 집회 성격의 대규모 교육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감사노트’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고안했다. 감사노트를 작성하고 교목들이 기독교 이해의 수업 시간이나 상담시간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랑은 행복의 저장고이며 감사는 긍정의 화수분이고 배려는 희망의 원동력이다’ 는 문장이 ‘감사

노트' 제일 앞면에 소개되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감사노트'의 모토로 삼았다. 총 52주로 구성된 '감사노트'는 사랑, 감사, 배려(love, thanks, care) 세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쓰도록 만들었는데, 나에게 감사할 만한 사람과 배려 관심을 베풀었던 사람, 내가 사랑을 줘야 할 사람과 대상에게, 감사해야 할 일들과 배려 받은 것들을 써 보면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도록 만들었다. 매일 쓰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번은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일주일 단위로 기록하게 만들었다. 기록으로 남겨진 이야기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아픔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자기-스토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쓰도록 안내했다.

감사노트를 통해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며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감사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신앙실천의 모토'와 '감사와 배려(돌봄)'라는 '인격성장의 키워드'를 설정하여 학생들이 이를 마음에 두고 점차로 실천해 나가면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갖춘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훈련의 한 과정으로서 교목실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작년에는 졸업생과 신입생을 비롯한 재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배부하기 위해 감사노트를 4,500부 제작하였다. 예쁜 디자인과 함께 매주 묵상의 글귀도 새겨 넣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이 감사노트를 '인성노트'로 발전시키려고 제작을 준비 중에 있다. 인성노트는 기존의 감사노트가 '감사'와 '배려'에 국한되어 있어 인격과 품성을 키우는 다양한 인성 교육과 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감사노트를 활용한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인성 교육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교목실의 새로운 아이টে이다. 인성노트는 말 그대로 학생의 인격과 품성을 전체적이지 통전적으로 고양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학생들의 '인성의 발달'을 위한 자기-검증과 자기-기억과 자기-발전을 위한 좋은 기록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공통 필수 교과목인 '기독교이해' 수업의 통일성이다. 교목을 포함한 다섯 명의 교·강사에게 맡겨진 기독교이해 과목은 목사들이 전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과 인성 교육의 마당(장;場)이다. 이 교육의 장이 어찌 보면 기독교 대학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도 강력하게 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전해주고 기독교인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해 교목실은 이 과목의 강의를 위해 통일된 교재를 공동으로 저술하여 제작하였고, 올해부터 이 강의를 모든 강의자가 통일된 기독교의 시각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하기 위하여 강의계획서와 강의 방법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통일

된 내용과 방법으로 강의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감리교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감리교 대학으로서, 감리교의 정체성과 탁월성 등을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가 대학의 학생들에게 미래 생활을 위한, 특히 취업을 위한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격과 품성이 결여된 채로 대학문을 나서게 되면 그것은 ‘일하는 기계’를 육성한 것과 다름이 아닐 것이다. 본인 개인으로나 사회와 국가적으로 볼 때 자칫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인성의 함양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일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인성이 더 큰 경쟁력일 수 있다. 더욱이 신앙마저 갖춘 인물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간다면 그들이 이 사회와 나라, 세상을 ‘사랑’과 ‘감사’와 ‘배려’ 그리고 ‘신앙’으로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 믿는다.

2016년 올해 배화여자대학교 교목실의 사역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이다. 골로새서 1장 28-29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워가는 모습을, ‘온전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인격이 성숙해져가는 인성교육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이 교육 기관이라는 점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이라는 실행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선택하였다. 2016년 이 배화여대의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받아들이도록 ‘권하고’ 목사들이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르침’을 행해서 모든 학생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에 전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힘을 다하는 교목실이 되고자 한다.



## 김세환 목사

덕신고등학교 교목실장

## 인천 강화땅에서 시작되는

## 학원선교의 새 바람

##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 강화도에는 4개 지방 130여개의 감리교회가 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학원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감리교 계통학교 “덕신고등학교”가 있다. 덕신고등학교는故 어덕신 장로님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으로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설립하였으며,故 김인필 장로님을 거쳐 현재 강효성 목사(서울연회 종로지방 궁정교회 담임)님이 학교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현재 어영숙(강화중앙교회)교장 선생님외 30여명의 교직원들과 30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아울러 본교 교목실은 교목실장인 김세환 목사가 학원선교와 학생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목으로 유성재 목사가 학원선교와 종교과목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본교 교목실은 4대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 첫째는 예배사역이다.

예배는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중심축이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똑같다. 매주 드려지는 학생예배, 교직원예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예배까지 각종 절기예배를 그리고 있으며, 지역목회자와 학급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드리는 학급미션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원설립기념예배, 고3 위로 예배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학생들의 예배의 집중도를 더욱 높이고자 예배소 감문을 작성하고 시상하기도 한다. 본교 학생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 가고 있다.



### 둘째는 선교사역이다.

본교 선교사역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 매주 금요일 점심 시간에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자유롭게 모여 드리는 기도회가 있으며, 매월 기독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학부모기도회가 있다. 또한, 에이레네 기독학생회를 통한 선교활동 및 찬양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신입교사의 연수와 기독교사수련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역교회가 학교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가까운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화도에 있는 일반학교에서도 기도모임과 찬양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교 교목실에서는 돕고 있다.

### 세 번째는 인성교육 사역이다.

본교에서의 교목실은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선교활동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입생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급별로 “아이유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친구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다. 또한, 아침 등굣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해피 모닝 데이”를 통해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산을 오르며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사제동행활동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포래상담반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한화 해피 프렌즈 활동도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중요한 인성교육중의 하나이다.

### 네 번째는 봉어빵 사역이다.

매주 화요일이면 덕신고등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학생들에게 무료로 사랑의 봉어빵을 나눠주는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봉어빵에는 오병이어가 담겨 있다. 물고기 모양의 빵이기 때문이다. 김세환 목사가 2005년부터 시작한 봉어빵 사역은 2013년 덕신고등학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오병이어 봉사단이 조직이 되어, 학생들도 봉어빵 굽는 일데 동참하고 있다. 매년 12월에는 일주일 동안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하는 봉어빵 나눔”사역이 강화읍에서 실시되고 있다. 매년 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강화군민들에게 무료로 봉어빵을 나눠주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강화군에서 열리는 청소





년 활동, 지역교회에서 봉어빵 나눔, 생명존중 걷기 캠페인 부스 운영, 농촌마을회관, 각종 복지 시설에도 찾아가서 봉어빵을 나누고 있다.

봉어빵 외에도 “나눔의 팝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학교 안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제작한 이 쿠폰에는 세상의 쿠폰과는 다른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

- 1) 유효기간이 절대 없다.
- 2)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다.
- 3) 친구와 함께 오면 두 배가 된다.

교목실에서 직접 제작한 이 쿠폰을 모든 선생님들에게 3장씩 나눠준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에게 칭찬과 함께 쿠폰을 주는 것이다. 선생님께 쿠폰을 받은 학생이 혼자 오면 그 학생에게 팝콘 한 봉지를 주고 값없이 친구를 데려오면 그 친구에게 덤으로 팝콘을 준다. 학생들이 나눔을 실천하도록 한 방법이다.

## 나오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은 청소년 선교이며 청소년선교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기독교학교, 그것도 감리교 계통학교의 학원선교 사역이라고 생각된다. 감리교 계통학교들이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설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야 한다.

우리 감리교회에는 자랑스러운 제도가 있다. “학원선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학원선교사”와 “학원선교교육주일 · 장학주일”이 있다. 그만큼 학원선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60여개의 감리교계통중 · 고등학교가 성공적으로 학원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원동력은 한국감리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이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갈수록 학원선교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럴 때 더욱 필요한 것은 학원선교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다. 지금까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 서울관광고등학교와 중앙교회의 행복이야기



### 믿음의 역사로 자라온 서울관광고등학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인사는 서울관광고등학교의 특색이며 자랑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는 알게 모르게 학생들의 바른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육성하는 건학이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관광고등학교는 이런 건학이념을 살려서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한 글로벌 관광 인재 육성 목표로 학원의 명문화와 복음의 명문화에 힘쓰는 믿음의 교육 공동체입니다.

서울관광고등학교 관학학원은 1978년 故 함성학 목사님께서 학원선교에 뜻을 두고 관악여상으로 개교한 후 2004년 서울시 최초 관광특성화학교로 선정되어 서울관광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많은 관광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특성화 명문학교입니다. 믿음으로 꿈을 키우는 비전의 서광인,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는 친절한 서광인, 건강한 신체와 학력을 갖춘 실력 있는 서광인, 관광전문자격을 소지한 재능의 서광인, 세계와 대화할 수 있는 세계적 서광인을 길러내어 학생과 학부모님,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로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고등학교가 지금까지 명문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밑바탕에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내의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인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현재도 학교를 위해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울관광고등학교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의 역사로 자라왔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자랄 것입니다.

### 사랑의 수고로 동역하는 중앙교회

서울관광고등학교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학교 법인 재단이면서 자매교회인 중앙교회(서울연회 종로지방, 담임 정의선 목사)의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선교에 뜻을 둔 중앙교회가 2000년도에 학교를 인수하면서 학원의 복음화 사역은 더 활발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의선 목사님께서 중앙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시면서부터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시고, 성탄절, 부활절 세례식 등 학원선교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관광고등학교가 자랑으로 삼는 학생 세례식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서울관광고등학교는 매년 1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1학과 2학기 말에 행하는 세례식에 정의선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세례를 집례하시고, 세례 받는 학생들을 위해 선물과 간식 준비해 주시는 등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목실에 후원해 주시는 선교비는 학원선교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선교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교목실에 찾아오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음료와 간식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또한 학원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부 동아리 활동에도 사용되어 집니다. 중앙교회의 사랑의 수고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드러지는 목적 헌금인 학원선교 헌금은 학교의 발전과 선교를 위해 후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 중보하시는 중앙교회의 사랑의 수고는 갚지 못할 가장 큰 후원입니다. 서울관광고등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정적 공간까지 자매교회인 중앙교회의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매교회라는 울타리는 날로 어려워져가고 어두워져가는 학원선교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교목들과 기독 교사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선교의 새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행복한 동행

믿음의 역사로 자라온 서울관광고등학교와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는 중앙교회는 지금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와 교회가 후원을 받고 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돕는 유기체적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교회 정의선 목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와 교회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앙교회 예배시간을 이용하여 서울관광고등학교 주관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와 기도, 특

별 찬양과 말씀, 학교 행사와 선교활동의 보고 등 모든 순서를 학교 주관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학교는 학원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는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는 학원선교의 열매를 보며 선교 사역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는 행복한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갖기로 결심한 학생들이 중앙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고, 한걸음 한 걸음 신앙에 대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청년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교회 중·고등부 및 청년부는 더욱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 생활의 안정, 저 출산 등으로 인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는 빠르게 늙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126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중앙교회도 고령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매교회인 중앙교회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서울관광고등학교와 중앙교회가 서로 돕고 돕는 끈끈한 유대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믿음과 기도, 자매교회의 사랑과 헌신, 그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서울관광고등학교와 중앙교회는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실현에 있어서 황금어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선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확장이 기독교 학교까지는 신성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기독교 종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관광고등학교와 자매교회인 중앙교회는 학원선교와 교회선교에 있어서 조금은 색다른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을 포함한 다양한 선교의 방법과 전략들이 학교도 교회도 더불어 상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실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계통학교와 자매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홍원영 목사

대신교회 담임목사

## 대신교회의 교육 - 선교 이야기

대신교회는 6·25 민족동란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인 1957년 늦여름, 이화여자대학교로부터 부지 150평을 기증받아 신촌동 산 1번지에 세워집니다. 초대 담임자는 김택규 전도사로서 천막과 판자로 세워진 교회에서 열정을 다하여 교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홍호 박사>는 이화여대의 몇몇 교수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대신교회에 출석하며 교회성장에 일익을 담당해 주셨고, 이러한 이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조금씩 부흥하게 됩니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다보니 좀 더 넓은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내 1960년 봄, 대신교회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이때 이화여대 초대총장인 김활란 박사와 김옥길 박사 그리고 함선영 박사께서 당신들의 어머니를 기념하여 성전건축헌금을 바쳤는데, 그리하여 오늘날에서 대신교회 입구 주보곶이 옆 기둥에는, <김활란 박사의 어머니님 박토라 여사, 김옥길 총장의 어머니님 방신근 권사, 함선영 선생의 어머니님 김광도 권사의 믿음을 기념합니다.>라는 기념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신교회는 창립초기부터 이화여자대학교와 교육에 열정을 가진 교육전문가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교회교육과 차세대 양육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었고, 교회가 자립하는 시점부터는 학원선교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신교회는 이화여대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원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14개 교육기관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원선교와 차세대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신교회가 교육선교와 관련하여 장학금 혹은 선교비를 후원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 ②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 ③ 이화여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목실
- ④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중학교 교목실
- 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⑥ 호서대학교



- ⑦ 배화여자대학교
- ⑧ 기독교대한감리회 학원선교회
- ⑨ 기독교교육정보학회
- ⑩ 청소년 선교회
- ⑪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⑫ 캄보디아 이화스렁학교
- ⑬ 대신어린이집
- ⑭ 대신야학

대신교회가 장학금 혹은 선교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초기에는 이화여대의 관련기관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점차로 일반대학과 학원선교기관으로, 그리고 청소년 선도기관과 해외교육선교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장학금 혹은 선교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을 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화여자대학교 관련기관 : 신학대학원, 부속고등학교, 부속중·고등학교 교목실
- ② 학원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호서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 ③ 선교기관 : 학원선교회.
- ④ 학회 : 기독교교육정보학회.
- ⑤ 청소년 선도기관 : 청소년 선교회,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⑥ 해외 교육-선교기관 : 캄보디아 이화스렁학교.
- ⑦ 대신교회 부속 교육기관 : 대신어린이집, 대신야학.

대신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및 부속 학원(부속 고등학교, 부속중학교, 부속초등학교)을 졸업한 교인들이 많다보니, 교회가 자립하며 이화여자대학교 관련 교육기관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은 당연한 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대 부속고등학교>와는 매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약 30여 년 전부터 고등학교에 장학금과 선교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위하여 소예배실들을 개방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목실과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여 교회에서는 교목실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에 신앙서적을 기증하는 등 간접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교목실 역시도 추수감사절이면 학생들이 만든 <부활란>을 교회에 전달하여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신교회는 이화여대관련기관 외에 교육사업 외에도 교회 내에 <대신어린이집>과 <대신야학>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 세워진 배경은, 1970년대 초 신촌에는 수업료가 비싼 이대부속 유치원 외에 취학 전 아동교육기관이 없던 터라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의 가정을 위하여 <대신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영유아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5년 초에 학제를 <어린이집>으로 개편하여 <대신어린이집>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어린이집>은 서대문구에서의 종교단체 운영인가 제1호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대신야학이 세워진 배경은, 이미 1964년부터 이미 대신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야간공민학교를 시작한바 있었는데, 이러한 전통들이 계승되어 마침내 1981년 초 기독교정신에 뿌리를 둔 <대신야학>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야학 졸업생들의 검정교시 합격률은 거의 100%에 이르며, 올해로 36회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신교회의 설립초기 교육-선교사업에 대한 관심은 <어린이집>과 <야학>에 머물지 않고 외부 교육-선교기관인 <청소년 선교회>와 <학원선교회>를 지원하며, 교육 -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 선교회>에는 무려 35년 전부터, <학원선교회>는 2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해도 쉬지 않고 선교비를 지원하며 기도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안양소년원 내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를 지원하면서, 청소년 교육선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대신교회는 해외 교육 - 선교기관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바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이화스령학교>입니다. 본래 대신교회는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 씨엠립에 <대신교회 씨엠립 선교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현지인 선교와 현지인 아동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 선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는 프놈펜에 위치한 이화스령학교에도 선교비를 지원하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해외 교육 - 선교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냉정한 입장에서 보자면, 교육 - 선교사업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시적인 특별한 성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육 - 선교사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 있으니, 첫째는, 교육이라는 접촉점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한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교회는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육 - 선교 사업의 지평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김성기 목사

예수마음교회 담임목사  
교회학교살리기운동 본부장

## 예수마음교회의 학교앞전도 이야기



화천 산천어 축제에 갔다. 강에 많은 물고기를 넣어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낚시를 한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물고기를 낚아 올리며 즐거워한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왔다. 안내 방송하는 아나운서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 낚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기 잡는 법과 전도방법 원리가 서로 유사함을 느낀다. 예수님도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한 이유중의 하나가 물고기를 잡는 요령을 잘아서 였지 않았나 싶다.

2000년에서 지금까지 15년간 초 . 중 . 고 . 대학교를 찾아가 현장전도한 경험을 물고기 잡는 방법에 맞춰보며 다섯 가지 전도법을 말씀드린다.

### 1. 찾아가는 전도

어부들은 강과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한국교회에 황금어장인 학교를 찾아가 전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전면 놀토도 생겼습니다. 교사들은 맞벌이로 바쁘고 전도사들은 신학교를 가느라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저출산으로 교회학교가 줄어들고 학교를 찾아가는 전도도 약화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학생 전도사들은 수업 없는 평일 하루를 학교 앞 전도를 하러 가야 합니다. 수련목회자, 교육목사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학교 앞 전도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 가지 않는 교사와 할머니와 할아버지 권사님을 전도자로 세워 매일 학교 앞 전도를 하러 가야 합니다.

로고스교회 정순옥 할머니 권사는 매일 학교 앞 전도를 하여 매년 중학생 100명을 전도합니다. 대림교회 현재석 장로는 퇴근 후 매일 놀이터로 가서 전도하여 2015년 30명 어린이를 전도하였습니다. 전도는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적이 전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디처럼

친해지기  
(학교앞전도)



매월1회 총출석  
친구초청예배

스포츠전도와  
취미별 소그룹모집



교회어린이, 학생을  
전도자로 세우기

매일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교회마다 세워져야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합니다.

## 2. 친해지기(학교앞전도)

낯시할 때 지렁이먹이를 접촉점으로 하듯이 전도를 쉽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친해지기를 먼저해야합니다.

친해지는 방법 세 가지

- ① 인사하기 ② 함께 운동하기 ③ 먹을것주기

예수님도 삭계오와 친해지기 위해 인사하고 함께 산책하며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되어 변화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등하교 길에 학교 앞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을 만나 친해지기 위해 인

사를 합시다. 마이쉴리나 사탕 등 먹을 것을 주면 친해집니다. 한적한 곳에서 줄넘기, 훌라후프, 테니스, 피구 공을 던지고 받으면 속도감 있게 친해집니다. 토요일 주일은 학교운동장에 들어가 함께 이야기하고 친해지기를 합니다.

교장, 교사, 학교지킴이등과 친분관계를 맺으면 더욱 좋습니다. 장학금을 교회에서 졸업식 날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수중앙교회와 대림교회는 학교에 장학금을 전하면서 교장선생님과 학생들과 친해졌습니다.

상담, 동아리 활동교사로 들어가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상 학교 전도에 갑시다. 10년 학교 앞 전도를 한다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대림교회는 10년간 학교 앞 전도로 부서별 3배출석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 3. 스포츠전도와 취미별 소그룹모집

물고기 종류에 따라 맞춤형 고기잡이가 있듯이 취미별로 전도가 필요합니다. 축구, 농구, 피구, 야구 등 스포츠동아리를 학교 앞 전도시 모집하여 감리교어린이, 청소년전국대회에 참여하면 전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림교회, 만수중앙교회 교육담당목사로 있을 때 6학년 4개 초등학교에서 축구로 30~50명씩 전도되어 모집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풋살팀, 피구팀, 야구팀, 농구팀을 조직하여 이웃교회와 친선경기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중창팀, 연극부, 요리부, 독서부, 공부클럽등 취미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전도하면 든든히 교회학교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마음교회는 개척하여 이와 같은 동아리모임으로 부흥과 교육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사별 소그룹운동은 꿈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육의 터전이 됩니다. 정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4. 매월 1회 총출석 .친구초청예배

축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꾸준히 친해지기를 하고 매달 1회 총출석 .친구초청예배를 해야 부흥이 됩니다. 학교 앞 전도에서 초청 전 2주간 초대장을 나눠 줍니다. 장년부 속장들도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활 속에서 친해지기를 하여 초대장을 나눠주면 교회학교부흥에 힘이 됩니다. 사역자, 교사, 어린이, 학생 모두가 협력하여 전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송, 간식, 간증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할 사람을 찾아 세우고 교사들이 간증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자료를 찾아 활용해도 좋습니다. 분기별 연극, 버블 쇼, 인형극, 기독교매직 공연들을 하면 좋습니다. 매달 한 번씩 꼭해야 성장을 합니다. 줄다리기 하듯이 전도대상자와 결석자들을 예

수님께로 힘차게 인도합니다. 진관교회와 안산광림교회 등이 부흥하였습니다.

### 5. 교회어린이, 학생을 전도자로 세우기

사역자와 교사들이 학교에 찾아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어린이 학생들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고 칭찬합니다. 성탄절에 전도상 시상식을 하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됩니다. 1년에 3명하는 사람은 5만원권, 5명을 하는 사람은 10만원권 상당의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주면 효과가 큼니다. 1명한 사람도 선물을 줍니다. 선물 받는 것, 상을 받는 것은 전도 목표를 불러일으킵니다. 대림교회 안승규 학생은 매년 20명 4년간 80명을 전도했고 예수마음교회 문준기 어린이는 6개월간 8명을 전도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 결론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 물고기를 잡듯이 위의 5가지 방법을 배워 교회마다 전도하여 부흥을 이루어 갑시다. 어린이 청소년전도는 쉽고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전도하여 성경을 가르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좋은 일꾼이 됩니다. 황금어장인 학교로 교회마다 찾아가는 전도자를 세우고 취미별 동아리를 모집하여 전도를 활성화 합시다. 매월 1회 친구초청 예배를 꼭 실시하여 풍성한 전도축제와 더불어 부흥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2016년 어린이, 청소년, 교사, 사역자 모두 3명씩 전도해 봅시다.

교회마다 20명이상 전도하여 감리교어린이, 청소년 10만명 전도운동을 이루어갑시다.

박정수 목사  
팔봉중학교 교목

# 개교 50주년! 팔봉중학교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 들어가는 말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산 자락에 오롯이 자리를 잡은 팔봉중학교는 1966년 4월 1일 설립되어 올 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감리교 계통학교이다. 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해오고 있어 서산 지역사회 내 신앙 교육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50년 전 팔봉중학교 설립에 얽힌 신앙 이야기로 감리교회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자 노력한 신앙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다.

## 1. 창학정신의 발현

### (1) 설립자 정계훈 장로(현, 어송감리교회 원로)의 어린시절

설립자 정계훈은 1936년 1월 15일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435번지에서 둘째 아들로 비교적 부유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3살 되던 해 소아마비병에 걸려 크나큰 시련을 예고했다. 현대의학을 총동원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결국 정계훈은 일어나지도 못하는 장애아로 부모와 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6살 때까지 엎드려 일어서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나날이 계속되었다. 걸을 수 있다지만 불편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져 항상 우울하고 침울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걷는 모습을 보여주지 싫어서 학교에 제일 일찍 등교하고, 모두 다 하교한 후 제일 늦게 귀가하는 학창시절을 보낸다. 그 때의 상황을 정계훈 장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틈을 빠져 교실을 가려면, 교실 안에서 우굴거리는 반 친구들의 틈을 헤치고 내 책상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부끄럽고 위축되는지 어린 마음에도 서럽고 또 서러워 책상에 엎드려 올라치면 착한 친구들이 달래곤 한다.

이른 새벽, 큰 길에 사람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는 그 이른 새벽에 나는 학교엘 간다. 텅빈 운동장 안에 서면 가슴이 확 트이는 듯 싶어서 좋았고, 복

도를 걸어 빈 교실을 지나고 또 지나 우리 교실 내 자리에 앉으면 줄줄이 늘어선 책상이랑 칠판이랑 꽃병들이 모두 정다운 나의 친구가 돼 주었고, 나만을 위해서 있는 듯 싶어서 좋았다.”

이처럼 정계훈은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 생활을 보낸다.

## (2) 제 2의 탄생을 경험

항상 우울하고 매사 자신이 없었던 정계훈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 일어났다.

아산군 영인면 영인산에서 당시 감리교 부흥사인 박재봉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5일간 계속된 부흥회는 시작 때부터 비가 와서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병을 고쳐 남들처럼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참여했던 부흥회에서 정계훈은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시오. 기적을 내리시어 정상인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나도 남들처럼 달리고 뛰고 반듯하게 걷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새벽에 학교에 가고 해가 다진 후 집으로 오는 일 없이 친구들과 같이 웃고 장난치고 떠들며 학교에 오가고 싶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 머리끝에서 얼굴로 온몸을 세차게 때렸다. 이런 가운데 정계훈의 기도는 더욱 절실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기도가 끝난 것은 해질 무렵이었고, 영롱한 오색무지개가 눈앞에 전개되었다. 정계훈이 바라고 간절히 소망했던 육체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다. 영롱한 무지개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묵상에 잠긴 소년 정계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불구자가 아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성취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불구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처럼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텅빈 가슴으로 들었다.

이 때 정계훈은 하나님과 두 가지 약속을 했다. 일생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과, 장애자가 되어 국방의 의무를 못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온몸으로 우리나라 오는 찬송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 이때부터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토록 초라한 모습으로만 생각되어 걷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던 정계훈이 이제 당당하고 떳떳하게 걸을 수 있었고 두렵지 않았다. 너무 극성스러울 정도로 매사에 적극적인 학생으로 변모했다. 중등부 YMCA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이다.

## (3) 목회와 교육

몸이 성치 못한 너는 한의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모님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중앙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냈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동료들과 더불어 야학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감리교회에서 백승호 등과 함께 청소년, 장년 180명에게 야학교육을 통해 초등학교에 편입시켰다.

정계훈은 신학교 재학 중에는 더욱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다. 마포구 원효로에 구두담이 소년들의 합숙소 겸 야학을 개설 동료들과 더불어 불우청소년들을 지도했고, 4.19혁명으로 잠시 부모가 있는 한산에 내려가서는 성실여자중학교 장만용과 이은영, 강영록 등과 성실고등공민학교신설에 일조했으며, 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로 부임한 교회가 서산시 대산면 명지감리교회였다.

정계훈은 목회와 교육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다. 부임하자마자 성경을 통신으로 공부하게 하는 일, 문맹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모아 <한길학원>을 개설, 야학으로 성경, 역사, 영어, 한문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듬해 서산시 고북면 고북감리교회로 임지를 옮겨서는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에서 상록수의 저자 심훈 선생이 민족혼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세운 상록학원에서 상록수 소설에 나오는 박동혁의 실재 인물 심훈의 조카 심재영, 김형환, 고광윤,곽정연과 더불어 상록학원을 재건하여 청소년들을 모아 농촌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했다. 또 1965년 서산제일감리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면서 상록학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180여명을 농촌중견지도자로 길러내었다. 1966년 서산시 팔봉면 어송교회에 담임전도사로 시무하면서 배우고자 하는 열성은 강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1966년 4월 1일 웨슬리 중등구락부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개교 당시 학생 4명이 출발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40여 명이 몰려들었다. 학생들 교육하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목회에는 소홀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목회를 하던지 학교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강력한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가는 곳마다 목회와 교육을 병행하며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열심이었던 것이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히고 만 것이다. 고심 끝에 결심을 한다. 학생들에게 3년 과정을 가르친다고 약속을 하고 모집공고를 하여 40여 명의 학생이 배우고 있다. 그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교육의 길을 택하자.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예수의 정신과 인격을 심어주면 그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를 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아닌 둘의 조합을 이룬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말이다.

#### (4) 훌륭한 스승을 만남

정계훈의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은 어느 곳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라. 목사 김연호 에게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목사 조종범 에게서는 인간 사랑하는 정신을, 목사 이호빈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기를 갖는 마음을, 송악중학교 설립자이며 교장인 허운을 통해서 는 교육자의 사명을 배웠던 것이다. 바로 이런 훌륭한 스승들이 가르쳐 준 교훈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정계훈은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다.

### 2. 설립자 정계훈 장로의 집념과 창학 정신

아산군 영인면 영인산에서 목사 박재봉이 인도하는 부흥집회에 참석했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계훈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교육과 전도에 전념을 다했다. 중학교 때의 일이다. 교실을 짓기 위해 산 너머에서 베어지는 나무를 나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모든 학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각각 열심히 산등성이를 넘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정계훈은 할 일이 없었다. 그때 교장 허운이 정계훈을 불러 동료들이 나르는 나무의 숫자를 파악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너무도 기뻐 열심히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정계훈에게 교장 허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숫자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 계훈이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며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신다. 나는 교실 한 칸에 나무가 얼마나 들며 함석은 몇 장이나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여쭙어 보았다. 허운 교장선생님은 나를 한동안 쳐다보시더니,

“왜 그렇게 자세히 묻는가? 자네도 학교를 짓고 싶은가?”라고 말씀하신다.

“선생님, 저는 장래 희망이 농촌에 학교를 세워서 많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

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잘 알아두어야 하지 않겠어요.”

선생님은 나의 두 손을 꼭 잡아 주시며 만족해하신다.

바로 이런 결심이 이어져 1966년 4월 1일 어송감리교회 내에 웨슬레 중등구락부를 개설했고, 마침내 교회와 교육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로에서 교육을 택하는 용단을 내리게 된다. 언제나 큰 일을 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여러 시련들이 닥쳐왔다.

교회사역을 포기한 후, 즉시 닦친 문제는 웨슬리 중등구락부를 개설한 교회에서 교육할 장소를 옮겨야 하는 문제였다. 다행히 어송리 2구 마을에 4H회관이 있어 회관으로 교육장소를 옮겼다. 그러나 점차 학생 수가 늘어나 40여 명에 이르게 되자 많은 학생을 수용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즐거운 고민거리였다. 이런 와중에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이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하다가 말 것을 한다.’며 보내는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러나 정계훈은 기어코 뜻을 이루겠다는 강한 집념의 불이 타 올랐다. 처음에는 부모도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다가 이 불굴의 정신에 감동되어 부친 정동준은 평생 직장(당시 농협 전무)의 퇴직금 일부를 주어 그 퇴직금으로 팔봉면 어송리 솟돌재(현 팔봉중학교)언덕에 1,400여 평의 대지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손수 벽돌을 짚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할 교실을 짓기 시작했다. 이에 감동이 되어 주민들도 하나 둘 협조자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뜻에 동참코자 마침내는 김철수씨가 대지 3천 여평을 희사하기에 이른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3개 교실을 완성하고 1967년 고등공민학교 인가를 받게 된다.

이런 집념이 1971년 팔봉중학교 인가를 받게 된다. 그 때의 기쁨이야말로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처음 학교를 설립하고자 결심을 하고 스승 함석헌을 찾아가 말씀을 받고자 할 때, “나 선생

은 가르치는 자요, 본을 보여주는 자요, 감화를 주는 자니라.”라는 교사훈을 내려주어 팔봉중학교 교사훈으로 삼고 창학이념으로 하나님의 정신, 즉 기독교 정신을 모태로 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을 길러보고자 敬天愛人 樂土建設(경천애인 하나님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낙토건설 우리 꿈을 땅 끝까지 이룩하자)로 정했다. 즉 하늘을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기 좋은 낙토로 건설할 일꾼을 만드는 사람을 길러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요 도달점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정하였다.

## 나오는 말

오늘날 많은 기독교 계통학교들이 내외적 원인으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 기독교 계통학교의 건학정신을 이어가며 미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복음의 복음을 심어주는 기독교 교육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기독교 계통학교가 처음 설립 당시의 신앙적 배경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대에 맞는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실천해 나아가야 글로벌 그리스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이글은 읽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의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학교현장에서 복음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 교사들에게 많은 기도와 협력을 모아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조정진 목사

사)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사무총장



1. 상처가 별이 됩니다(Scar into the star).

장기기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는 현재 3,000여 명이 넘는 분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떠났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며 장기기증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뜻을 받들어 고귀한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큰 슬픔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인해 상처는 눈부신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사랑의 별, 소망의 별이 됩니다. 상처가 하늘의 사랑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도됩니다.

기증사례

“엄마 나 목도리 하나만 써주세요. 엄마 목도리 잘 쓰잖아요.”

“엄마 바빠, 목도리 그냥 하나 사서 해, 요즘 예쁜 것도 많던데”



평소 부탁을 잘 하지 않던 딸이 애교를 부리며 목도를 하난  
떠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일이 바빠 목도리를 뜰 여유가 없  
었기에 딸의 부탁을 그냥 넘겼습니다. 그 부탁이 딸의 마지막  
부탁이 될 줄도 모르고...

“장기기증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의 푸르고 아름다운 청춘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다시 꽃 피  
웠을 생각을 하면 아빠와 엄마는 큰 위로를 얻어, 너도 하늘나  
라에서 네가 남기고 간 아름 다운 선물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 사랑하는 나의 딸 은정에게 아빠가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2015년 겨울 선한 이웃”에서 발췌

이제 갓 서른을 넘긴 젊고 아름다운 은정의 생명이 누군가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라며 한 결정.  
2009년 4월28일, 은정은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7명에  
삶 속에서 못 다 펼친 꿈을 펼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어주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은 기증자나 수혜자나 모두에게 삶의 치유이자, 회복이자, 소망입니다.

## 2. 장기기증은 새로운 삶으로 피어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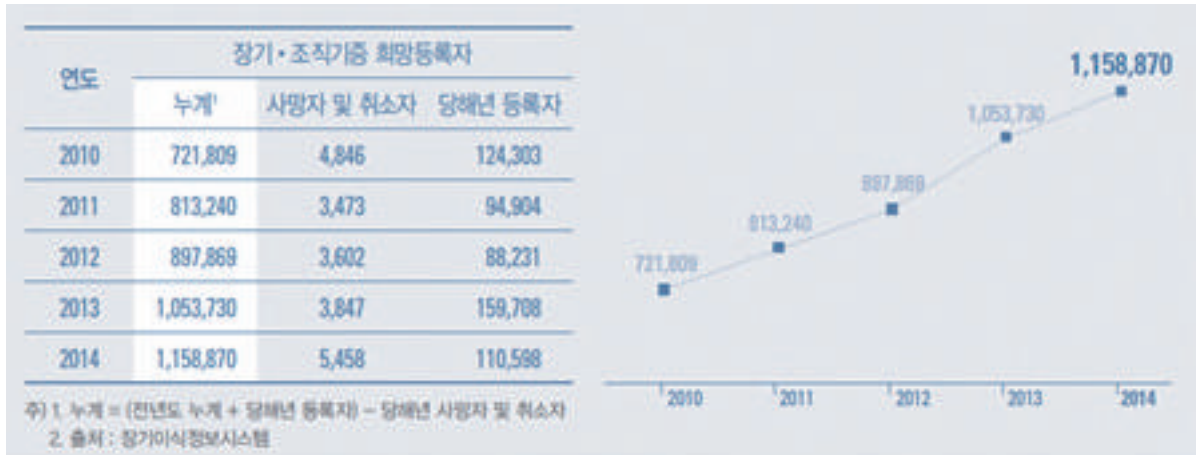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4년 기준 166,700여명으로 해마다 2,000여명 늘고 있지만, 장기기증  
자는 1,500명 정도이니 기증자와 수혜자의 격차가 갈 수 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나 폐와 같이  
생체이식이 불가능한 장기부전 환자들은 뇌사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뇌사 기증자의 숫자는  
한 해에 440명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인구 1백만명 당 뇌사 장기 기증률 미국 26.6명, 스페인 34.3  
명, 프랑스 25.3명, 영국 13.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4명으로 턱없이 낮은 숫자입니다.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평균 4.3년(신장)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스페인 2.0년, 미국 3.4년보다 훨씬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15, 9. 희망의씨앗).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해마다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자가 증가추세에 있  
다는 사실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대 국민적인 의식전환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이어가는 귀중한 사랑의 나눔 행위입니다. 장기기증을 받은 이들 10명 중 8명 이상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삶을 향유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다시 찾은 삶에 경외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들에게 생명을 이식하여 준 이들의 삶의 뒤편까지 헌신하며,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갑니다.

## 최근 5년간 장기·조직기증 희망등록자 현황

2014년 12월 말 기준(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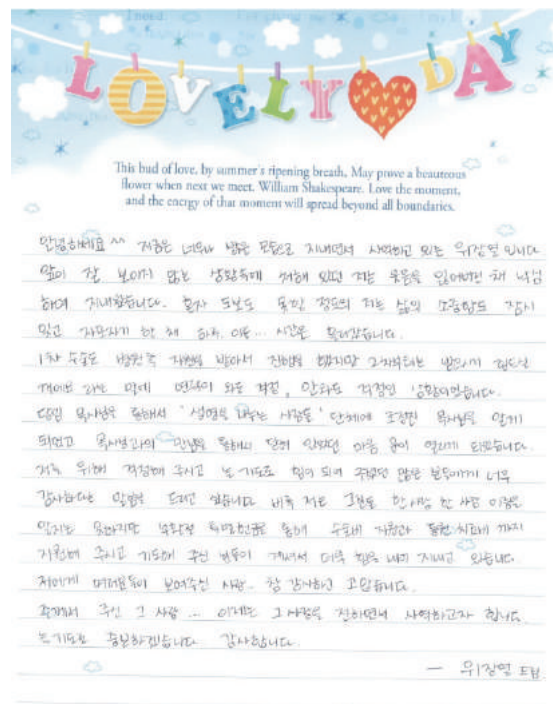


## 각막기증 수혜자 위장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탓일까... 여섯 살이 되던 해 장열씨는 교회에서 놀던 중 오른쪽 눈이 찢리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시신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막이식은 남아 있는 한쪽 눈의 시신경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열씨처럼 시신경이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은 일종의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다되는 순간,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완벽한 어두움 이 찾아들게 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저는 웃음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여 지내왔습니다. 삶의 소중함도 잠지 잊고 자포자기 한 채 하루, 이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제가 볼 수 있다는 말씀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만약 눈을 뜨게 된다면 이제는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위장열(각막이식 수혜자 편지 중)



2012년도 한 해 동안 600여명이 각막이식 수술을 통해 빛을 볼 수 있었지만, 아직도 (2012년 말 현재) 약 1,200여명의 사람들이 각막기증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 듯 보기에 나머지 1,200여명의 ‘등록된’ 대기자들에게도 각막 이식의 기회가 금방 돌아갈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정작 국내에서 각막을 기증한 분은 200여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각막기증은 임종 후 이루어지며 각막기증을 통해 누군가에 사랑을 빛을 전해주게 되는 고귀하고 숭고한 나눔 행위입니다.

### 3. 장기 · 인체조직기증 절차 및 방법<sup>1)</sup>

#### 장기 · 인체조직기증과 기증희망등록이란 무엇인가요?

| 장기기증이란?                                                                                                                                                                                                                                                                                                                                                                                                                                                                           | 인체조직기증이란?                                                                 | 기증희망등록이란?                                                    |                                                                                                                                                                                                                                                                                                                                                                                        |
|-----------------------------------------------------------------------------------------------------------------------------------------------------------------------------------------------------------------------------------------------------------------------------------------------------------------------------------------------------------------------------------------------------------------------------------------------------------------------------------|---------------------------------------------------------------------------|--------------------------------------------------------------|----------------------------------------------------------------------------------------------------------------------------------------------------------------------------------------------------------------------------------------------------------------------------------------------------------------------------------------------------------------------------------------|
| <p>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뇌사기증</b>: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li> <li>• <b>사후기증</b>: 심장사(심 정지 후 사망) 후 기증</li> <li>• <b>생존시 기증</b>: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li> </ul>                                                                                                                                                                                                     | <p>신체의 일부로써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대가 없이 신체 일부를 제공하는 것</p> | <p>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 · 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p> |                                                                                                                                                                                                                                                                                                                                                                                        |
| <p>◆ 기증희망등록이 완료되면?</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기증희망등록증</p>  </div> <div> <p>신분증용 스티커 / 차량용 스티커</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li> <li>•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를 일반우편으로 발송</li> </ul> |                                                                           |                                                              | <p>◆ 운전면허증에 장기·조직기증희망자 표시를 하려면?</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기증희망자 표시 여부」 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면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장기조직기증」 표시</li> </ul> <p>※ 운전면허증 기증희망자 표시를 신청하였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기 전까지 신분증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 가능</p> |

#### 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 · 조직에는 무엇이 있나요?

| 뇌사기증                                                                                                                                                                                                                                                                                                                                                                                                                                                                                                                                                                                                                                                                                                                                                                                                                                                                                                                                                                                             | 사후기증                                                                                                                                                                                             | 살아 있는 자의 장기기증                                                                                                                                                                                                                                                                                                                                                                                                                                                                                                                                                                                                                                                                                                                                          |
|--------------------------------------------------------------------------------------------------------------------------------------------------------------------------------------------------------------------------------------------------------------------------------------------------------------------------------------------------------------------------------------------------------------------------------------------------------------------------------------------------------------------------------------------------------------------------------------------------------------------------------------------------------------------------------------------------------------------------------------------------------------------------------------------------------------------------------------------------------------------------------------------------------------------------------------------------------------------------------------------------|--------------------------------------------------------------------------------------------------------------------------------------------------------------------------------------------------|--------------------------------------------------------------------------------------------------------------------------------------------------------------------------------------------------------------------------------------------------------------------------------------------------------------------------------------------------------------------------------------------------------------------------------------------------------------------------------------------------------------------------------------------------------------------------------------------------------------------------------------------------------------------------------------------------------------------------------------------------------|
| <p>기증 가능한 장기</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4, 1fr); gap: 10px;"> <div><br/>신장</div> <div><br/>간장</div> <div><br/>심장</div> <div><br/>폐장</div> <div><br/>췌장</div> <div><br/>췌도</div> <div><br/>소장</div> <div><br/>안구</div> </div> <p>• 소장과 동시 이식하는 경우: 위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p> | <p>기증 가능한 장기</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p>안구</p> | <p>기증 가능한 장기</p> <div style="display: grid; grid-template-columns: repeat(3, 1fr); gap: 10px;"> <div><br/>신장</div> <div><br/>간장</div> <div><br/>췌장</div> <div><br/>췌도</div> <div><br/>소장</div> <div><br/>골수</div> </div>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희망의 씨앗 10호”자료 인용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                                                                     |                                                                     |  |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  |  |  |  | <p>• 친족간 기증: 만 16세 이상<br/>(골수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p> <p>※ 친족: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br/>인척 · 8촌 이내의 혈족</p> <p>• 타인간 기증: 만 19세 이상<br/>(골수의 경우 만 18세 이상~55세 미만)</p> |
|---------------------------------------------------------------|---------------------------------------------------------------|---------------------------------------------------------------------|---------------------------------------------------------------------|--|-------------|--|--|--|--|--------------------------------------------------------------------------------------------------------------------------------------------------------------------|
| <br>뇌<br><br><br>안구<br><br><br>근육<br><br><br>피부<br><br><br>장기 | <br>뇌<br><br><br>안구<br><br><br>근육<br><br><br>피부<br><br><br>장기 | <br>안대<br><br><br>건<br><br><br>혈관<br><br><br>심장판막, 심장<br><br><br>신경 | <br>안대<br><br><br>건<br><br><br>혈관<br><br><br>심장판막, 심장<br><br><br>신경 |  |             |  |  |  |  |                                                                                                                                                                    |

기증자를 위한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의거, 정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원

|  |                                                                                                                                                                                                                                                           |
|--|-----------------------------------------------------------------------------------------------------------------------------------------------------------------------------------------------------------------------------------------------------------|
|  | <p><b>뇌사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li> <li>2. 장례지원서비스</li> <li>3. 기증자의 순수·무상 기증 취지를 살려 사회단체 기부</li> </ol> <p>※ 유가족이 1, 2, 3 중 택일</p>                                                        |
|  | <p><b>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장기기증 시 검진 진료비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간장, 신장 등 장기를 기증한 경우, 기증 후 1년 동안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li> <li>• 사전검진 후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li> </ul>                                   |
|  | <p><b>근로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금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인 기증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응 등에 소요된 입원기간 (최대 14일 이내)에 대해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li> </ul>                                                      |
|  | <p><b>생명나눔증서 발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사 장기기증자 · 인체조직기증자 · 안구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글 및 생명나눔증서 발급</li> </ul>                                                                                                                            |
|  | <p><b>온라인 추모관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a href="http://www.konos.go.kr">http://www.konos.go.kr</a>) 내에 「생명나눔 추모관」 운영</li> <li>• 가족, 친지는 물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증자의 이름답고 송고한 뜻을 추모</li> </ul> |

서정식 목사

대전대신교등학교 교목

## 교회학교 부흥은 학원(학교)선교가 해답입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상황은 어떠신지요? 어른 목회는 그래도 되는데 아이들 목회가 어렵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좋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최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최고의 교육 목사 또는 전도사를 초빙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예배시간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학교) 선교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2015년도에 중등교목회에서는 교육국과 학원선교회 약 일만 오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훨씬 더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는 돈이 많습니다. 학생들 수업료만으로는 교직원 급여도 되지 않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목실은 재정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돈은 특정 종교를 위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목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거의 맨몸으로 뛰었습니다. 교육국에서 열심히 지원해주셨지만 60여개의 중·고등학교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수 년 전에 이런 학교 현실을 알고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학원선교회를 결성하여 십시일반으로 회비를 모아 지원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원금 자체가 도움이 됨은 물론 격려해주시는 마음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는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학원선교회와 교육국에서 적극 지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아래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셨

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배 목사님들이 큰 수고로 세계가 놀랄 만큼 대 부흥을 이뤘지만 아이들이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교회도 서구의 교회들처럼 문 닫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시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들은 소극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이 오기만 기다리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변의 학교들 특히 기독교 학교를 찾아가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대전대신중고등학교에서는 2015년에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그룹상담형 채플을 시도하였습니다. 지역 교회 교역자 및 자원봉사들 80여명이 학교로 들어 오셔서 채플시간에 학생들을 5명씩 조를 나누어 8주 동안 연속해서 만나 상담하며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 자원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독교학교에서만 가능하기에 미션스쿨이 중요한 것입니다.

2016년도 학원선교교육주일 및 장학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학원선교교육주일 및 장학주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아예 지키지도 않아 안타깝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학원선교교육주일 및 장학주일을 지키되 헌금 모아서 장학금 전달하는 것으로 다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장학금과 더불어 2016년도 학원선교주일 및 장학주일을 맞이하며 다음 2가지를 제안합니다.

1. 학원선교교육주일 및 장학주일이 봉헌보다도 전체 감리교회가 학원(학교) 선교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 교회들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기독교학교가 있으면 교목을 초청하여 교우들과 함께 학원 선교교육 현장을 나누고 기도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2. 헌금이 가능한 교회는 모아서 장학금 지급보다는 교회 주변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또는 기독 교사를 만나 선교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 방법을 찾아서 사 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교목과 의논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5년 교육국과 학원선교회를 통한 계통학교 중등교목회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교 특별 성회 및 공연 지원 — • 학교: 20개교 • 학생: 14,468명 • 지원: 교육국, 학원선교회

|    | 학 교 명     | 초청 강사(팀) 명  | 참석인원수   | 행사일시  |
|----|-----------|-------------|---------|-------|
| 1  | 천성중(천안)   | 할로 섹스톤 목사   | 500     | 5.29  |
| 2  | 이대부중      | 조이 브라더스     | 900     | 7.17  |
| 3  | 서울관광고     | 김정태         | 750     | 6.24  |
| 4  | 삼일공고(수원)  | 최현욱         | 1500    | 9.3   |
| 5  | 삼일상고(수원)  | 엔젤 보이스      | 360     | 9.17  |
| 6  | 천안상고      | 할로 섹스톤 목사   | 450     | 5.29  |
| 7  | 영화정보고     | 서정식 목사      | 900     | 9.11  |
| 8  | 이천양정여중    | 이건희         | 650     | 7.9   |
| 9  | 호수돈여고(대전) | 해나리, 갓스 이미지 | 650     | 10.14 |
| 10 | 호수돈여중(대전) | 해나리, 갓스 이미지 | 1000    | 10.14 |
| 11 | 이천양정여고    | 브랜치         | 950     | 9.30  |
| 12 | 이화금란고     | 브랜치         | 1200    | 6.10  |
| 13 | 대전대신고     | 브라이언 박      | 700     | 6.17  |
| 14 | 영명고(공주)   | 김명기 선교사     | 915     | 7.15  |
| 15 | 배재중       | 해나리         | 827     | 7.16  |
| 16 | 영란여중      | 피케이         | 470     | 9.9   |
| 17 | 팔봉중(서산)   | 유대형 한동대 교수  | 186     | 9.23  |
| 18 | 광성중       | 브랜치         | 470     | 10.12 |
| 19 | 배화여중      | 빌 메이저스 목사   | 590     | 10.28 |
| 20 | 대전대신중     | 브랜치         | 500     | 9.25  |
| 계  | 20개 학교    | 20명(팀)      | 14,468명 |       |

2) 하늘양식 보급 — • 학교: 30개교 • 지원부수: 1000권 • 지원처: 학원선교회

| 학 교 명  | 부수 | 학 교 명 | 부수 | 학 교 명        | 부수 |
|--------|----|-------|----|--------------|----|
| 팔봉중    | 30 | 이대부중  | 20 | 서울관광고        | 35 |
| 배화여중   | 35 | 양정여중  | 35 | 천안상고         | 20 |
| 대전대신중고 | 30 | 배화여고  | 15 | 영란여중         | 20 |
| 광성고    | 30 | 군산영광중 | 30 | 배재중          | 50 |
| 명지고    | 70 | 세경고   | 50 | 경화여중         | 30 |
| 호수돈여고  | 50 | 천성중   | 20 | 호수돈여중        | 35 |
| 이화여고   | 40 | 공주영명고 | 30 | 경화여고, E비즈니스고 | 60 |
| 재현중    | 30 | 광성중   | 20 | 태광고          | 20 |
| 덕신고    | 15 | 양정여고  | 50 | 한울고          | 50 |
| 팔렬고    | 30 | 영화고   | 30 | 이화외고         | 20 |

3) 장학금 지급 — • 학교: 10개교 • 학생수: 10명 • 지원: 학원선교회

| 학 교 명 | 학 생 명 | 학 교 명 | 학 생 명 |
|-------|-------|-------|-------|
| 이대부중  | 정00   | 덕신고   | 윤00   |
| 천성중   | 김00   | 배화여고  | 이00   |
| 삼일상고  | 유 0   | 호수돈여고 | 양00   |
| 배화여중  | 정00   | 광성고   | 권00   |
| 매향중   | 이00   | 천안상고  | 도00   |

2016년 감리교계통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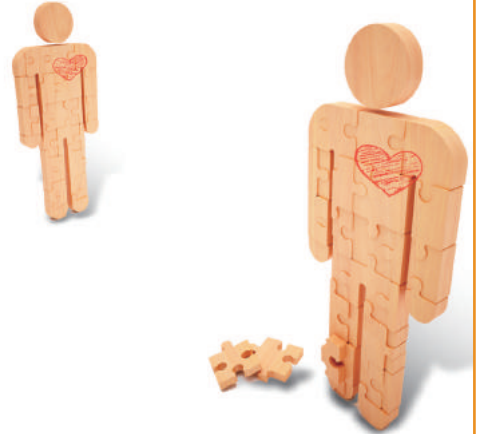
| No. | 법 인    | 이사장(설립자)     | 학 교            | 교 목 |
|-----|--------|--------------|----------------|-----|
| 1   | 감리교신학원 | 김인환          | 감리교신학대학교       | 박종천 |
| 2   | 감리교학원  | 박영태          | 목원대학교          | 박노권 |
|     |        |              |                | 안승병 |
|     |        |              |                | 이광주 |
|     |        |              |                | 손삼권 |
|     |        |              |                | 김칠성 |
| 3   | 계훈학원   | 정지만          | 팔봉중학교          | 조영선 |
| 4   | 관악학원   | 정의선          | 서울관광고등학교       | 조금석 |
|     |        |              |                | 조원철 |
|     |        |              |                | 곽정석 |
| 5   | 광성학원   | 최준수          | 광성고등학교         | 남원진 |
|     |        |              | 광성중학교          | 서해운 |
|     |        |              |                | 김신원 |
| 6   | 대전대신학원 | 이강년<br>(이기역) | 대전대신고등학교       | 김영노 |
|     |        |              | 대전대신중학교        | 강정현 |
|     |        |              |                | 서정식 |
| 7   | 덕신학원   | 강효성          | 덕신고등학교         | 어영숙 |
|     |        |              |                | 김세환 |
|     |        |              |                | 유성재 |
| 8   | 동성학원   | 양제만<br>(김득연) | 경화여자고등학교       | 김정석 |
|     |        |              | 경화여자중학교        | 김인화 |
|     |        |              | 경화여자E-비즈니스고등학교 | 서영옥 |
|     |        |              |                | 송광수 |
|     |        |              |                | 우종억 |
|     |        |              |                | 강태욱 |
| 9   | 매향학원   | 김호섭          |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 박정화 |
|     |        |              | 매향중학교          | 김혜숙 |
|     |        |              |                | 강영옥 |
| 10  | 명지학원   | 송 자          | 명지고등학교         | 황남택 |
|     |        |              |                | 김종화 |
| 11  | 문영학원   | 박종세          |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 방원자 |
|     |        |              | 서울문영여자중학교      | 김남수 |
|     |        |              |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한정훈 |
|     |        |              |                | 이경진 |
|     |        |              |                | 박성환 |
| 12  | 배재학당   | 황방남          | 배재대학교          | 김영호 |
|     |        |              |                | 이성덕 |
|     |        |              |                | 김사도 |
|     |        |              |                | 김경우 |

| No. | 법 인    | 이사장(설립자) | 학 교        |     | 교 목 |
|-----|--------|----------|------------|-----|-----|
| 12  | 배재학당   | 황방남      | 배재고등학교     | 이재하 | 장운석 |
|     |        |          |            |     | 박성중 |
|     |        |          | 배재중학교      | 서명석 | 신영경 |
|     |        |          |            |     | 김상진 |
| 13  | 배화학원   | 정하봉      | 배화여자대학교    | 김숙자 | 전병식 |
|     |        |          |            |     | 김언영 |
|     |        |          |            |     | 김영석 |
|     |        |          | 배화여자고등학교   | 유환옥 | 이기성 |
| 14  | 산돌학교   | 전용재      | 산돌학교       | 이은재 | 김은철 |
|     |        |          |            |     | 서형준 |
|     |        |          |            |     | 유성준 |
|     |        |          |            |     | 신동욱 |
| 15  | 삼일학원   | 서 철      | 협성대학교      | 박민용 | 이광선 |
|     |        |          |            |     | 손성수 |
|     |        |          |            |     | 이진경 |
|     |        |          |            |     | 이주희 |
|     |        |          |            |     |     |
|     |        |          |            |     |     |
|     |        |          | 삼일공업고등학교   | 소진억 |     |
|     |        |          | 삼일상업고등학교   | 홍성욱 | 김경진 |
| 16  | 새빛학원   | 임승용      | 안산대학교      | 김주성 | 박은혁 |
|     |        |          |            |     | 김재중 |
|     |        |          |            |     | 노현수 |
|     |        |          |            |     | 김성희 |
| 17  | 서울예술학원 | 이대봉      | 서울예술고등학교   | 금난새 | 김은주 |
|     |        |          | 예원학교       | 이종기 | 서세훈 |
| 18  | 성암학원   | 이재식      | 남서울대학교     | 공정자 | 이사야 |
| 19  | 송도학원   | 이수영      | 송도고등학교     | 오성삼 | 조희영 |
| 20  | 양정학원   | 김성희      |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 이봉식 | 하은용 |
|     |        |          | 이천양정여자중학교  | 장대식 | 문은실 |
| 21  | 연세학원   | 김석수      | 연세대학교      | 정갑영 | 조재국 |
|     |        |          |            |     | 한인철 |
| 22  | 연풍학원   | 최애도      | 세경고등학교     | 이준화 | 김중배 |
|     |        |          | 파주중학교      | 이승정 | 신성훈 |
| 23  | 영명학원   | 표용은      | 공주영명고등학교   | 이기서 | 유혜중 |
|     |        |          | 공주영명중학교    |     |     |

| No. | 법 인     | 이사장(설립자)     | 학 교           |     | 교 목 |
|-----|---------|--------------|---------------|-----|-----|
| 24  | 영화학원    | 김흥규          |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 김정연 | 이광선 |
|     |         |              | 영화초등학교        | 안태홍 | 강주현 |
| 25  | 이화학당    | 장명수          | 이화여자대학교       | 최경희 | 양명수 |
|     |         |              | 영란여자중학교       | 김애희 | 이평일 |
|     |         |              | 이화여대병설미디여고등학교 | 최진자 | 이대길 |
|     |         |              |               |     | 차은혜 |
|     |         |              | 이화금란중학교       | 여성희 | 이현숙 |
|     |         |              | 이화금란고등학교      | 이영하 | 조종철 |
| 26  | 이화학원    | 이기우          | 이화여자고등학교      | 강순자 | 이영복 |
|     |         |              |               |     | 이영미 |
|     |         |              | 이화여자외국어고      | 한현수 | 김형석 |
|     |         |              | 팔렬중고등학교       | 신학봉 | 이광채 |
| 27  | 인덕학원    | 김성중          | 인덕대학교         | 이우권 | 구완서 |
|     |         |              |               |     | 장형철 |
|     |         |              | 인덕공업고등학교      | 이경식 | 최철기 |
| 28  | 재현학원    | 김진우          | 재현중학교         | 이병대 | 김의태 |
| 29  | 천일학원    | 박창훈          | 천성중학교         | 조만휘 | 김봉환 |
|     |         |              | 천안상업고등학교      | 김영찬 | 서경진 |
| 30  | 태광학원    | 김기영          | 태광고등학교        | 최종일 | 최한영 |
|     |         |              | 태광중학교         | 황지연 |     |
| 31  | 한울학원    | 김진우<br>(박우승) | 온양한울고등학교      | 박우승 | 김향아 |
|     |         |              | 온양한울중학교       | 권영일 | 이성재 |
| 32  | 호수돈학원   | 안승철          | 호수돈여자고등학교     | 주금섭 | 김혜숙 |
|     |         |              | 호수돈여자중학교      | 임광순 | 김형일 |
|     |         |              |               |     | 강석구 |
|     |         |              | 청신여자중학교       | 강신호 | 김산완 |
| 33  |         |              | 태화국제학교        | 윤정호 | 오창환 |
| 34  |         | 박명홍          | 웨일즈국제학교       | 성 백 | 박형서 |
| 35  | 성순학원    | 이명숙          |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 전봉권 | 조성철 |
|     |         |              |               |     | 유재훈 |
| 36  | 실천신학대학원 | 홍성국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이요한 | 김선영 |
| 37  | 한양학원    | 김종량          | 한양대학교         | 이영무 | 이천진 |
|     |         |              |               |     | 이영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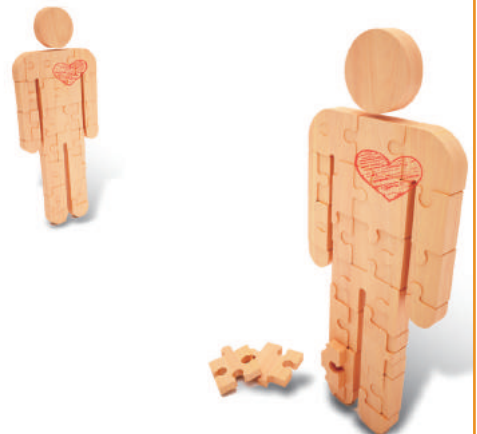
## 학원선교회 조직

|       |     |       |     |                 |
|-------|-----|-------|-----|-----------------|
| 고 문   | 김진호 | 신경하   |     |                 |
| 자문위원  | 황방남 | 김기택   | 임준택 | 강일남 김인환 김동걸 조성근 |
| 지도위원  | 강흥복 | 고달수   | 김보영 | 강문호 윤병조 이종용 김순영 |
| 회 장   | 김종훈 |       |     |                 |
| 부 회 장 | 남문희 | 박춘희   |     |                 |
| 총 무   | 김영호 |       |     |                 |
| 부 총 무 | 황한진 |       |     |                 |
| 협동총무  | 정현범 |       |     |                 |
| 서 기   | 홍원영 | 부 서 기 | 심규환 |                 |
| 회 계   | 박찬수 | 부 회 계 | 신태하 |                 |
| 감 사   | 이용원 | 차창규   |     |                 |
| 간 사   | 유 경 |       |     |                 |



## 교 목 회 조직

|     |                        |
|-----|------------------------|
| 회 장 | 유혜종(중·고등학교) / 전병식(대학교) |
| 총 무 | 허광열(중·고등학교) / 이사야(대학교) |
| 회 계 | 김봉환(중·고등학교)            |
| 서 기 | 김종화(중·고등학교)            |



## 기독교학교 교육헌장



1.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에게 응답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와 대업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는다.
3.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나 숙명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터전임을 믿으며 우리는 그의 목적과 완성의 날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 받았음을 믿는다.
4.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로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간성이 개조될 수 있음을 믿는다.
5.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악과 부정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협조적인 새 질서를 수립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 기독교학교가 가지는 독특하고 신성한 사명임을 믿는다.

(1970년 9월 25일 제정)